

방학·휴가 겹쳐 혈액 보유량 바닥

광주전남 적정 보유량의 절반 수준 그쳐

증장로 헌혈의집 방문자 크게 줄어 '비상'

여름방학과 휴가, 폭염이 겹치면서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헌혈자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혈액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공급팀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은 농축적혈구(RBC) 3.8일분, 농축혈소판(PLT) 1.5일분이다.

광주전남은 혈액 보유량은 주의단계인 2.6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 5일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혈액형별로 나눠보면 AB형이 2.2일분으로 가장 적었고 A형이 2.3일분, O형이 2.8일분, B형이 3.3일분으로 뒤를 이었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혈액보유량이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주로 헌혈을 하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간데다 직장인들은 휴가기간까

지 겹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광주전남 헌혈자는 총 13만 85명으로 전국 헌혈자 166만 7,253명 가운데 12.8%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헌혈자가 방문하는 동구 증장로 헌혈의집은 하루평균 150여명, 많게는 200여명 정도씩 찾아왔지만 최근에는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7월부터 8월까지의 휴가철까지 겹쳐 단체헌혈도 지원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꺼려하는 것도 헌혈자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헌혈의집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국 헌혈자 수가 3만 1,686명이 감소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당번 헌혈의집에서 홀로 헌혈을 하고 있는 대학생 윤모씨(23·여)는 "헌혈의 집을 찾을 때마다 북새통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한산해서 당황했다"며 "생명을 나눈다는 생각에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혈액원 한 관계자는 "10~20대가 주를 이루는 헌혈문화가 중년층까지 확대 됐으면 좋겠다"며 "휴가 전 헌혈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주 수습기자

교육연수원장 김동일·학생교육원장 김성남 광주시교육청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

광주시교육청 9월 1일 자 관내 초·중·고교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 127명(초등 69명·중등 5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6일 단행했다. 인사는 광주교육연수원장 등 교육공무원 퇴직·전직에 따라 결원 후임 보충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인사명단 19면>

광주교육연수원장엔 김동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광주학생교육원장은 김성남 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박숙희 건국유치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강수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이, 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은 김제안 광주체육교 교감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오경미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이 각각 자릴 옮겼다.

도,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

원청 교육지원국장은 영육의 광주효광중 교장과 이마라 월봉초 교장이 임명됐다.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우재학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을,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에 백기상 혁신교육과 장학관을 발령했다.

교장 중임 대상자나 공모교장 임기 만료 교원의 임용 제정 추천에 대해선 교장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됐다. 이밖에, 공모 절차를 거쳐 초등 4명·중등 1명의 공모교장도 임용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과 민선 3기 교육 정책, 학교문화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했다"고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손가락 절단' 선원 이송 서해해경, 70대 노인도 후송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합정과 헬기를 이용한 릴레이 이송으로 응급환자를 긴급 구조했다.

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신안군 흥도 남서쪽 3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인도네시아 국적) 손가락 절단 사고 신고를 받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대형 합정과 헬기를 긴급 출동시켰다.

서해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9시께 흑산도 보전소로부터 기관지 질환이 심한 70대 할머니를 헬기로 이송했다. 서해해경청 소속 목포항공대와 서해특수구조대는 올해 들어 응급환자 14명을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성폭력 예방 간담회

16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반복되는 학교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참가자를 위한 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여성민우회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교육청관계자, 학부모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폭염에 가뭄...신안·보성서 벼 '고사'

전남지역 농경지 폭염 피해 300ha 넘어서

벼가 이삭을 퍼는 시기에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본격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해 고사하는 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신안 지도(5ha), 보성 장도(1ha) 논에서 고사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올여름 들어 폭염이나 가뭄과 관련해 벼 피해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쪽 모두 도서 지역으로 물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섬에서는 이미 용

수 대란이 시작된 셈이다. 내륙에서도 벼의 물 마름 현상이 심해지고 그 면적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현재 전남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6.4%로 평년(70.2%, 10년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친다.

가뭄이 지속하면 봄부터 최악의 가뭄에 허덕었던 지난해 저수율(38.5%)과의 간격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저수율도 전남(42.4%)은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충남과 함께 '심각' 단계에 있다. 벼의 경우 중만생종 수확기가 10월 초·중순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9월 말까지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줘야 한다.

소나기라도 오기를 기다리는 농업현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가 과수나 채소에 집중됐지만, 이제부터는 벼도 고사 면적이 늘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가벼운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망"

경찰, 신고안한 60대 입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 문에 부딪힌 80대 노인이 사고 28일 만에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택시 승객을 내려주다 자전거를 탄 노인이 열린 택시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북구 운암동에서 승객을 내려주다 가 열린 택시 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85)가 부딪혀 결국 숨지

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자녀들은 A씨가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줄 모르고 장례를 치르다가 '화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장례식장의 요구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직접 A씨를 충격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상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종찬 기자

내기당구 치다 '싸움질'

○...내기당구 문제를 시비가 돼 김씨가 고씨를 폭행하자, 이에 고씨도 흥기로 박씨를 위협한 혐의.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내기당구를 흔하히 '피보기'라고 하는데 이번 내기에서 두사람은 진짜 피를 볼뻔했다"며 "지나친 내기당구는 자제해야 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정근산 기자

상가원룸매매 {신축전문}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하남농협 1분 (코너)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 상가1칸★
2층~3층 (원룸 8개) (투룸 2개)
4층 (주택) (최고급 - 35평 아파트형)

보 5천 / 월 500만(용3억)
▶ 매가 8억 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3천
▶ 매가 6천800만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②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③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④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신정동) 코너 총 16개(상가1개) ▶ 매가 3억8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대신경매

상가빌딩 (추천)

1)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토 101평 건 220평 ▶ 감평가 10억 ▶ 최저가10억
2) 남구 송하동 (5층상가 건물) 토 138평 건 491평 (광주대사거리 2분) ▶ 감평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
3) 남구 압촌동 (주택) 토 87평 건 74평 (국제영아마을 코너 위치)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4) 서구 금호동 (4층 중 1층상가) 토 69평 건 137평 (대단지 아파트 단지) ▶ 감평가 13억 ▶ 7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토지) 유동단지 교차로 코너 / 6차로대로 접 ▶ 시세 35억 ▶ 최저가 24억
2) 광산구 진곡동 (토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17억
3)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평가 1억7백 ▶ 최저가1억7백
4)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9억1천
5) 북구 용봉동 (12층 중 12층)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2억6천
6) 상무지구 광명아파트 (1층) ▶ 감평가16억3천 ▶ 최저가 9억1천

근린상가 / 빌라 / 숙박시설

①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6평 건427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7억2천
②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6억5천
③ 광산구 수완동 (5층 중 2층) ▶ 감평가2억8천 ▶ 최저가 2억
④ 광산구 우산동 (클럽버스타드 1층)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⑤ 북구 중흥동 (씨너스전대 2층)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5천

A.P.T. 주택

① 수완지구 수완리제2차(2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4억2천
② 서구 용암동 중흥아파트(24평)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③ 서구 용봉동 현대아파트(40평) ▶ 감평가 2억8천 ▶ 최저가1억2천
④ 남구 백운동 제일파크(25평) ▶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
⑤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 시세 1억4천 ▶ 감평가 9천9백

공장/기타

① 북구 대촌동 (공장) 토 500평, 건575평 ▶ 시세 11억7천 ▶ 최저가 11억7천
②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 1,999평 건2,490평 ▶ 시세 68억 ▶ 최저가 38억
③ 강진군 칠량 (공장) 토 1,338평 건559평 ▶ 감평가 15억 ▶ 최저가 12억
④ 장흥군 장흥읍 (공장) 토 1,197평 건421평 ▶ 감평가 23억 ▶ 최저가 6억2천
⑤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58평 건591평 ▶ 감평가11억 ▶ 최저가 7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